

지하철 그 너머에 있는 노동자들

영화 '언더그라운드' 등
광주극장 12~26일 상영

김정남 암살 다룬 '암살자들'
가웨인 경의 영웅담 '그린 나이트'
대만 청춘 영화 '남색대문'
15일, 김미조 감독과의 대화



북한 김정남 암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짧은 부부의 좌충우돌 결혼살이, 부산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광주극장은 12일부터 26일까지 영화 '암살자들', '박강아름 결혼하다', '언더그라운드'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과 아서왕의 조카 가웨인 영웅담을 그린 '그린 나이트', 대만 청춘 영화 '남색대문' 등을 선보인다.

먼저 12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남 암살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2017년 2월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

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암살사건 자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의 해석과 함께 여성 용의자들이 어떻게 암살과 연루되었는지 집중 조명한다.

'박강아름 결혼하다' (19일)는 제목 그대로 박강아름 감독의 결혼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비혼 열풍 속 남편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난 박강아름은 결혼의 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결혼제도에 질문을 던진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육랑문화상 수상과 더불어 제45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1회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63회 독일프치히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모두가 잠든 사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지하철 노동자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언더그라운드' (19일)는 김정근 감독이 5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가까이 있지만 깊이 들여다본 적 없는 지하철의 세계와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하철을 운행하는 이들의 일상을 그려낸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제17회 환경영화제 우수상, 관객심사단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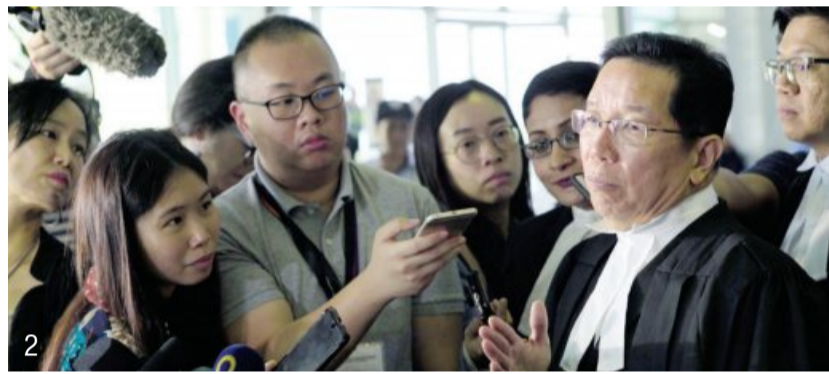
영화 '그린 나이트' (12일)는 14세기 영국에서 집필된 작자 미상의 2500행으로 이뤄진 두운시(두운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시)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를 원작으로 한다. '반지의 제왕', '호빗'으로 유명한 판타지 문학의 거장 J. R. R. 톨킨이 최초로 현대어로 번역한 작품으로 가웨인의 여정에는 죽은 자의 환영, 거인족, 말하는 여우 등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등장해 마치 그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의 시련스를 만들어 간다.

대만 청춘 영화 '남색대문'은 19일 관객을 만난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어쩔 줄 몰랐던 열일곱, 한여름의 성장통을 지나는 세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2002년 대만에서 개봉했지만, 국내에서는 영화제와 기획전을 통해서만 소개됐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스타덤에 오른 계륜미와 드라마 '연애의 조건'으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진백림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26일에는 열대우림의 식민 벽지를 벗어나길 바라며 점점 발령을 기다리는 치안관사 자마의 이야기를 그린 '자마'와 각자 이유로 상처를 떠안고 사는 세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아담'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15일 여성영화 '갈매기'를 연출한 김미조 감독과의 대화(GV) 시간도 마련된다. GV는 이날 오후 1시 영화 상영 후 열리며 진행은 김정목 감독이 맡았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으로, 일평생 스스로를 쟁겨본 적 없는 엄마 오복이 험한 사건을 당한 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진자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담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 '언더그라운드' 2 '암살자들' 3 '남색대문'

상처받고 소외된 여성들 이야기

임미나 작가, 소설집 '벼꽃' 펴내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고독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고독 속에 한 발 들어가 보려고 했고 지루함을 없애 보려고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고독을 지켜보고 지루함을 지켜보면서 얻은 생각은 시간의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90킬로나 80킬로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속도로 그들의 시간을 짚음을 알았습니다."

소설은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든,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서사든, 소설은 부조리하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형상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세상의 보이지

않는 '틈'에 존재하는 인물들의 삶은 훨씬 더 가혹하고 신산하다. 간혹 뉴스에 또는 소셜미디어에 회자되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나마 겉으로나마 드러나기도 한다.

임미나 작가가 펴낸 신작 소설집 '벼꽃' (아침)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환한다.

작품집에는 10대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향기'를 비롯해 모두 8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결혼을 앞두고 파국을 맞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눈', 30대 여성의 불행의 대물림을 묘사한 '복', 남은 건 침대에 묶여 병든 몸뿐인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별날'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노란 포대를 들고 '십 원만 주세요'를 외치며 길 위에서 살아가는 40대 여성 주인공 이야기 '벼꽃'은 일상의 이면에 드러워진 절망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이원화 소설가는 "작가는 주인공 여성들의 각박한 삶을 선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며 "이적이거나 착하기만 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현상이 우리들의 총체적 모습이자 우리 사회의 단면일 수 있다"고 평한다.

한편 임 작가는 2016년 '광주-전남작가' 소설 신인상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땅끝문화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elf-Designation

AI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ACC, 9월 3~5일 연극 '지정' 공연

몇 년 전 단편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에 진출해 능력을 인정받은 영화감독 4학년 제니. 그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제니는 AGI(범용인공지능) 정신과의사와의 상담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정'에 관심을 둔다. 지정은 개인이 차단하고 싶은 심리적 장애요인을 지정하면 그 심리적 장애요인이 조절되는 정신 상담 기술이다.

공연 AI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 정신과 첨단 기술과의 관계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연극 '지정 Self-Designation'을 무대에 올린다.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ACC 예술극장1.

연극은 범용인공지능이 인지신경을 조절하고 이를 정신상담 분야에 적용하는 'AGI 정신과의사'가 등장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인공지능 정신과의사의 심리조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인공지능에 의존한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작품의 포인트다.

공연은 AGI 정신과의사가 제니의 지정 알



이호재

이정미

고리증을 분석하는 중에 그의 심리적 장애요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이후 제니의 소식에 학교는 술렁이고, 제니의 선택이 정신적 지살이라는 논란까지 확대된다.

작품은 가변형 공연장 특성을 활용해 객석이 무대를 에워싸는 거리형 구조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독특한 관람 체험을 할 수 있다.

대표 배우 이호재, 연극계 베테랑 배우 이정미와 김정영, 나경민, 황은후, 홍선우, 경지은, 문병설, 유효현, 김강민, 샷츠르앗 등이 출연을 펼친다. 한편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01-46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대의 고운 노래에 강산도 노래하고'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4일 국제라이온스회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사진)는 지난 2009년 잊혀져가는 한국 가곡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처음엔 '내 마음의 노래-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가곡을 부르며 시민들의 감성을 일깨워왔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창단 13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준비했다. 14일 오후 3시 국제라이온스회관 4층.

공연 제목은 '그대의 고운 노래에 강산도 노래하고'다.

먼저 '오빠생각'과 '사랑의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며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민형식 시에 김원호가 곡을 붙인 '언덕에서'를 다 함께 부르며, 살레시오 초 4학년 고은채·이지아 양이 '산 너머 저쪽'과 '무지개빛 하모니'를 선

사한다. 다음으로 회원들은 '옛날은 가고 옛 어도', '별을 쬐는 밤', '그대 강가에'를 비롯해 '석굴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첫사랑', '그리움', '못 잊어', '수선화', '내 맘의 강물' 등을 들려준다.

초청 연주 시간에는 첼리스트 박효은이 동요와 가곡메들리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리베르탱고'를 연주하며, 바리톤 염종호, 소프라노 윤한나를 초청해 '산야', '신교산 타령', '내 마음'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의 대미는 다함께 조두남의 '벚꽃'을 부르며 장식한다.

무대에는 기세관·김종석·나인하·박상휘·황선우·정옥남·임동운·박순덕·남신·정갑주 등이 오르며 사랑의 하모니, 피아노 황인화·김수연도 출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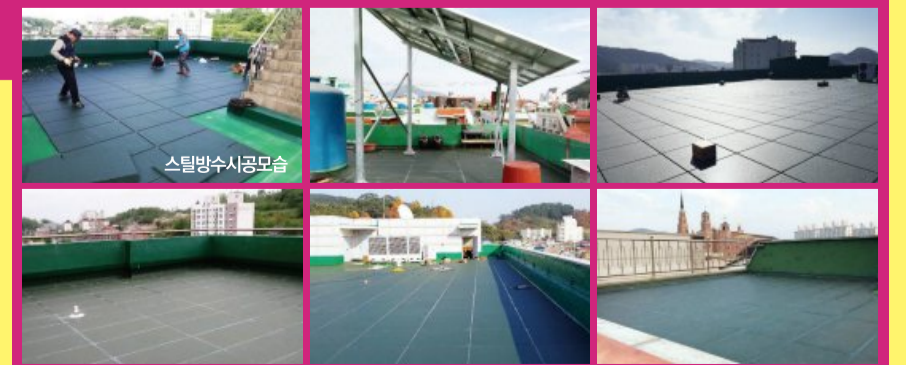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